

가락이 빠르고 힘찬 '평택농악'을 아시나요?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평궁리를 중심으로 전해오는 평택 율리농악은 1985년 12월 1일 중요무형문화재(현 국가무형문화재) 제 11-나호로 지정됐다.

평택 율리농악은 충청도와 경기도 지역 전문 연희패의 율리농악과 평궁리 두레농악이 결합한 형태다. 두레농악은 정초나 대보름에 지신밟기를 하거나 농사철에 두레풍물을 치던 놀이다.

제1공화국 시절 이승만 대통령의 생일을 기념해 개최된 농악 경연대회에 참가하면서 '평택농악'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게 됐다. 이후 1980년 최은창을 상쇠로 본격적인 평택농악이 만들어졌고 실력 있는 명인들과 평궁리 두레 농악패를 중심으로 전국민속예술대회에 참가해 대통령상을 받으면서 널리 알려졌다. 이를 계기로 1985년 중요무형문화재(현 국가무형문화재)가 됐다.

평택농악은 두레농악에서 하던 지신밟기, 두레굿과 더불어 난장굿, 절걸립, 촌걸립 등 걸립패에서 하던 전문연희패적 요소가 함께 나타난다. 이는 최은창이 전문 연희패에서 활동했고 초기 구성원들이 서울과 경기 남부, 천안, 공주 지역에 흩어진 명인들로 구성돼 전문연희패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이다.

평택농악은 평궁리 마을의 두레농악에 기원을 두고 있지만, 평택의 두레농악을 대표하기보다 경기 충청지방 전문연희패의 가락과 판제를 계승한 율리농악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농악은 가락의 종류가 많지 않으면서도 다양한 변주가 특징이다. 또 가락이 빠르고 힘차며 맺고 끊음이 분명하다. 모두 9~10종

류의 가락이 사용되며 그 중 대표적인 것은 마당일채, 짝짝이, 자진가락, 더드레기, 삼채, 좌우치기, 양산더드레기, 연풍대, 인사굿의 가락이 사용되는 길군악체다.

30명 정도로 구성되는 판굿은 진풀이가 다양하고 화려하며 생동감이 넘친다. 판굿은 지신밟기나 걸립을 하면서 집마다 마당씻이로 하던 풍물놀이가 발전한 것으로, 각종 놀이와 진풀이를 순서대로 짜서 기예를 선보이는 자리다.

평택농악의 판굿에서는 당산벌림대형과 무동놀이가 가장 특징적이다. 특히 오무동의 동거리와 곡마단은 난이도와 화려함에서 수준 높은 기예를 보여준다. 또 상쇠로서 최은창이 최초로 예능보유자가 됐다. 이어 상법고의 이돌천, 법고·사물·무동놀이의 김용래가 기능보유자로 지정됐다.

평택시에서는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이후 '평택농악보존회'를 만들고 평택농악전수회관을 건립하는 등 지역 농악을 보존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각종 국제행사와 외부 초청공연에도 참여한다. ❶

